
2 0 2 5 학 년 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통과목 해설지

[독서+문학]

어휘력과 독해력, 그리고 감상력



피렘의
국어공작소

생각 워크북 <카테고리 나누기>

2025.11 [1~3] 독서론(인문) '밑줄 긋기' ☆

1문단

① 밑줄 긋기는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② 밑줄 긋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③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④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⑤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에도 용이하다.

①~③ #화제 제시 #재진술

'밑줄 긋기'라는 독서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3번 문장은 이에 대한 재진술로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죠? 독자는 밑줄을 그으면서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기에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고, 또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기에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하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④~⑤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런 이유로 '밑줄 긋기'는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학습 상황'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시면서, '주요한 정보 추리기', '내용 다시 찾아보기'라는 '학습 상황'에서 '밑줄 긋기'가 가져다주는 장점을 납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내용 다시 찾아보기'와 같은 것은 '색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 확실하게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색인'이 있으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듯이, 밑줄이 그려진 부분을 바탕으로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지문이라도 이렇게 문장을 장악하며 읽으려는 태도를 갖춰주셔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카테고리가 나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쉬운 지문이 아니라면 이런 문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지문 전체의 체감 난이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2문단

①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②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든다. ③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렇게 '밑줄 긋기'는 아주 효과적인 독서 전략이지만,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면서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신중하지 않게 아무 곳이나 밑줄을 그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해요. 이에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보통 국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밑줄을 남발하다가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제부터는 '효과적인 밑줄 긋기'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납득하는 것을 넘어, '효과적인 밑줄 긋기'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서론 지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주목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지 첫 장을 넘길 수 있을 겁니다.

3문단

①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②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 ③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④ 또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 ⑤ 밑줄 긋기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⑥ 예를 들면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들에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순차적인 번호를 붙이기로 하는 것 등이다. ⑦ 이는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확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는 카테고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효과적인 밑줄 긋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문단의 내용을 연결지으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납득할 준비를 해봅시다.

②~③ #재진술

먼저,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는 방법입니다. 1문단에서부터 언급했듯이, '학습 상황'에서 '밑줄 긋기'의 장점은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밑줄 긋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죠. 나아가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⑦ #재진술 #사레-원리 연결

또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겠죠? 독자는 미리 정해 놓은

본인만의 표시 체계를 통해,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순차적인 번호를 붙이기도 하는 등 '밑줄 긋기'를 확장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아마 이렇게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두고 잘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새로운 정보로 보이면 안 됩니다. 앞 문단에서 말한 '효과적인 밑줄 긋기'가 바로 떠올라야 해요!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4문단

①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②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③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③ #재진술

'밑줄 긋기'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왔지만,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하지 않은,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밑줄 긋기'는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면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독서 전략'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끝까지 반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2%	94%	2%	1%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①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도, 학습 상황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했지.
해설	이 지문의 화제인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과 학습 상황을 가리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밑줄 이외의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명시적 근거	3문단 5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확장할 수 있지.
해설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확장하여 밑줄 이외의 기호, 순차적인 번호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은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해 좋은 방법 중 하나였어요.

③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니라니까.
해설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오해되어 왔지만, 본질적으로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고 했어요.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었기에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④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은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 유용하다.

명시적 근거	1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색인!
해설	'색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지요?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눈알 굴리기를 했다면 반성해야 해요.

⑤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역시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입니다. 아무리 쉬운 지문이어도 최대한 '납득'하면서 읽어야 선지 판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3%	1%	94%	1%

2.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

- 이 지문의 화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발문과 같은 문제네요.

① 글을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하며 읽는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밑줄이 많아지면 효과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해설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들기에,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밑줄이 너무 많으면 좋을 리가 없겠죠?

②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잠시 멈출 뿐이지.
해설	물론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글을 읽는 중에 '밑줄 긋기'를 잠시 멈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하는 전략은 아주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즉, 글을 읽고 있을 때 '밑줄 긋기'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③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기를 한 후 잘못 그른 밑줄을 삭제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판정하고 그으라니까.
해설	앞 선지에서도 확인했듯이,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한 뒤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굵고 잘못 그른 밑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어요.

④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가 있으면 좋지.
해설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이 지문의 화제인 '밑줄 긋기'의 목적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었죠?
--	--

⑤ 글에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며 글을 읽는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런 말은 한 적 없는데?
해설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과 관련된 언급이 지문 속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나아가 바로바로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정보를 추린 다음 밑줄을 그으라고 했죠? 여러모로 틀린 선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3%	20%	3%	3%	61%

3.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독서 목적)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
(표시 기호) , 1) . 2) . ✓ , ~~~

(독서 자료)
고래는 육지 [포유동물]에서 기원했지만, 수중 생활에 적응하여 새끼를 수중에서 낳는다. 1)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주며, 2)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한다.

[고래의 생김새]는 고래의 종류마다 다른데, ✓ 대체로 몸길이는 1.3m에서 30m에 이른다. ✓ 피부에는 털이 없거나 아주 짧게 나 있다. 지느러미는 배를 짓는 노와 같은 형태이고, 헤엄칠 때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고래는 폐로 호흡하므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는 분수공이 있다. 물속에서 잠았던 숨을 분수공으로 내뿜고 다시 숨을 들이마신 뒤 잠수한다. 작은 고래들은 몇 분밖에 숨을 참지 못하지만, 큰 고래들은 1시간 정도 물속에 머물 수 있다.

-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활용하여 '밑줄 긋기'를 한 모습입니다. 이때 '독서 목적'에 주목해야겠죠? '독서 목적'에 따라 '주요한 정보'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독서 목적'을 언급하는 것이 3문단 3번 문장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인상 깊게 남기기는 어려운 정보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에 [독서 목적]이 제시되었으니, 이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을 했다면 3문단 3번 문장의 내용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납득했던 정보니까요!

어쨌든, 이 학생은 '고래의 외형적 특징'과 관련된 정보를 '주요한 정보'로 삼아 '밑줄 긋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잘 수행했는지 확인해봅시다.

①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포유동물은 외형적 특징이 아니지.
해설	미리 생각했듯이, 이 학생은 '고래의 외형적 특징'과 관련된 정보를 '주요한 정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1문단에서 '□'로 표시한 부분은 '포유동물'이네요. 이는 '고래의 외형적 특징'과 무관하기에,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1)', '2)'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것도 전부 외형적 특징이 아니네.
해설	역시 1문단에서 '1)', '2)'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부분은 '독서 목적'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인 '고래의 외형적 특징'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했네요.

③ 2문단에서 '□'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래의 생김새는 외형적 특징이지.
해설	이번엔 '고래의 외형적 특징'이라는 '주요한 정보'와 관련된 '고래의 생김새' 부분에 잘 표시했네요.

④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2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에 '√'를 누락하였군.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외형적 특징인데 표시를 안 했네.
해설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라는 정보는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요한 정보'에 해당하기에 '밑줄 긋기'를 했어야 하는데, '√'와 같은 표시를 누락한 모습이네요.

⑤ '~~~~'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3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외형적 특징이 아닌데?

해설	고래가 폐로 호흡하므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은 '고래의 외형적 특징'이 아닙니다. 3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면,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는 분수공이 있다.'와 같은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해야겠지요. 이런 생각을 전개하면 당연하게 틀린 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

<p>*핵심 point*</p> <p>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p> <p>②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p> <p>③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p>

<p>*지문 내용 총정리*</p> <p>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독서론 지문이었지만, '독서 목적'과 관련된 생각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다면 3번 문제에서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중구난방식으로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납득'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에서 묻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기본적인 태도가 시험장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p>
--

생각의 전개 <인문 제재의 지문 읽기>

2025.11 [4~9] 인문 '동양에서의 서양 문물 수용' ☆☆☆

(가) 1문단

①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②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① #수식된 정의 제시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들을 '척사파'로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해봤다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대표적인 인물에는 '이항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이항로' 역시 서양이 과학과 기술 및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심지어 '개항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개항이 되었다는 것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저런 주장을 폈다는 것은 '척사파'의 입장이 상당히 완고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② #화제 제시 #정의 제시

결국 이 지문의 화제는 '척사파'의 주장이 아니라 '개화'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개화'는 '개물성무'와 '화민성속'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전자를 '개물성무'의 정의로, 후자를 '화민성속'의 정의로 잡고 읽을 수 있겠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두 개념의 정의를 일종의 '화제의 틀'로 인식하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및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하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와 같은 의미를 공유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개항 이후'의 상황이 제시된다면 조금 더 확장되고 심화된 의미로 표현되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개화'라는 핵심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한 채로 계속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개물성무'와 '화민성속'이라는 개념을 은근슬쩍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 정의는 '개항 이전'에 국한되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요? 만약 '개항 이후'가 제시된다면 새로운 정의가 나타날 것이니, 혹은 조금 더 확장된 정의가 나타날 것이니 정확하게 체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 2문단

①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②임오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③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④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수식된 정의 제시

바로 '개항 이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래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던 '개화' 개념은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기존의 정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를 '서양 문명의 수용'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개항 이후'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놓고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개화'라는 개념의 정의가 심화된 모습이에요!

②~③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구체적으로, '고종'은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합니다. 이제부터 '서양 문명'을 기반으로 '개화'할 것인데, '반서양 정서'가 남아 있으면 이것이 어려우니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문의 발간을 택한 것이죠. 이 '한성순보'라는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 즉 문명을 도입하여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이루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각각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라는 말과 대응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지식 확장을 통해 인지를 발달시키고, 풍속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끔 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종'과 같은 '통치자'가 '한성순보'의 발간을 지시하는 등의 '통치 행위'로 이루려고 한 것이구요.

④ #재진술

나아가,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즉 '화민성속'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의미상'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서양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것은 '통치자의 통치 행위'라는 '개화'의 기본적인 개념이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구요. 이렇게 앞문단의 내용과 붙여 읽으면서 '개화'라는 정보에 살이 붙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별개의 정보가 나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개항 이후'라는 말을 보면서, '개화' 개념의 정의가 조금 더 확장되어 제시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서양 문명의 수용'이라는 정의를 새로운 정보가 아닌, 앞문단에 제시된 정보의 확장 버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①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②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③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④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고자 했다. ⑤이후 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이번에는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 이 지문은 '개화 개념'의 변천사를 소개하는 지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화 개념'을 1문단에서 제시한 경의를 기준으로 확장시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어쨌든,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 역시 '개화'를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 보고 '통치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네요. 조금씩 다른 듯하지만 결국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한편,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쯤에는 '개화'의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계속해서 1문단에 제시된 경의를 따라가던 '개화 개념'의 정의가 크게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중요한 포인트이니 확실하게 체크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재진술

이번엔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입니다. 이는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요. '한성순보'에서 말하던 '풍속의 진보'와 '개화당'에서 말하던 '통치 방식 변화'를 모두 수용한 모습이지요? 이렇게 앞의 내용과 연결지으면 정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무튼 이는 '통치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나아가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고 합니다. '개화당'과 똑같이 '통치 방식 변화'를 주장했는데, 왜 여기서만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그건 바로 '개화'의 주체를 왕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납득'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④~⑤ #정의 제시 #재진술

하지만 '갑신정변' 이후,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개화 개념'의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기 위해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에서는 '개화 개념'이 '국가 구성원 전체'가 실행 주체가 되어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요. 다 똑같은 말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갑신정변' 이후 '개화 개념'의 실행 주체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고, 이에 '통치권에 대한 도전' 및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 등으로 '개화 개념'에 부정적 이미지가 심어졌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결국 '국가 구성원 전체'가 실행 주체가 되는 새로운 '개화 개념'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확실하게 잡혀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학생과 왜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하고 넘어간 학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지문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조금 내리고, 대신 이렇게 디테일한 '생각'의 차이로 문제 풀이의 난이도를 조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 4문단

①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②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④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⑤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⑥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⑦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주장 제시 #재진술

시간은 계속 흘러, '을사늑약' 이후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개화'에 대한 논의가 '개화 개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넘어,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고 해요. 먼저,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수용을 강조하면서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 즉 서양과 일본 등을 주체 인식의 준거로 보고, 이들과처럼 세상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는 '민족 주체성'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합니다.

지문 전체적으로 '개화 개념'의 정의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행위 주체에 대한 변화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왕'이었다가, '국가 구성원 전체'였다가, 이제는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인 '일본'까지 온 것이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지문에서는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④~⑦ #카테고리 나누기 #주장 제시 #재진술

이에 등장한 것이 '박은식'입니다. 그는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고 해요.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서양 문명을 수용하면서도 '민족 주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개화'의 주체가 '국가 구성원 전

체로 돌아온 모습이에요.

나아가 이렇게 자국 철학 전통을 정립하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박은식'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대 주체'를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죠. '박은식'의 주장을 계속해서 재진술하는 것에 불과하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③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 문장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개화의 주체'가 이 지문에서 상정한 '변화 양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개화'의 개념은 유지되는 가운데 주체만 달라지고 있던 것이었어요.

(나) 1문단

①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②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③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①~③ #화제 제시 #재진술

이번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에 패배한 뒤 위기감을 가지며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요. 하지만 '청일 전쟁'까지 패배하면서,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칫 '대한 자강회'의 주장처럼 '민족 정체성'을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어떤 논의가 나왔는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나) 2문단

①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③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①~④ #주장 제시 #재진술

먼저 '옌푸'의 주장입니다. 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그리고 중국이 처절하게 경험했던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을 강조합니다. 이는 1문단에서 말했던 '과학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2번 문장을 보면,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옌푸'가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을 가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장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변혁을 꾀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이죠? 이 주장을 이어받은 '천두슈'는 어떤 말을 했을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1문단의 화제가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고 느껴면서, '정신적 자질'을 '과학 정신'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나) 3문단

①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②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③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空想)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최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① #주장 제시 #재진술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변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옌푸'의 주장과 완전히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앞문단의 정보와 연결지어서 정보량을 줄여내야 합니다.

②~④ #주장 제시 #재진술

심지어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했다는 것까지 '옌푸'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가)의 '박은식'과는 다르게,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도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어요. 제1차 세계 대전과 같은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최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과학'에 대한 찬양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다 똑같은 말이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천두슈'의 주장이 '옌푸'와 완전히 똑같은을 인식하고 부담을 던 채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주장만 한다.'라는 인문 지문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결국 2문단과 3문단은 다 똑같은 말로만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요.

(나) 4문단

①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권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②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③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주장 제시 #재진술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의 끔찍한 참상을 지켜본 '장권마이'는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합니다. '장권마이'는 '과학적 방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 이를테면 제1차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된 제국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것들은 '과학'을 이용하는 주체들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과학'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천두슈'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하죠?

하지만 '장권마이'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생관의 문제'에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고 해요. '박은식'의 주장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장권마이'의 주장이 재진술되는 문장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박은식'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같은 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5%	6%	64%	14%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① (가):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명시적 근거	(가) 1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척사파의 주장이 꽤나 완고했지.
해설	개항이 되었는데도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척사파'의 주장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주장이 거셌다는 식으로 납득했던 기억이 있죠? 이렇게 납득하면서 읽는 습관이 있어야 이런 선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가):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박은식의 주장이지.
해설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던 '박은식'의 주장 그 자체였습니다.

③ (나):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제네.
해설	(나)의 화제 그 자체입니다. '아편 전쟁'과 '청일 전쟁'에서 연달아 패배한 중국에는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 '과학 정신'의 이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했다고 했어요.

④ (나):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2번 문장, (나) 3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학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정치적 변혁이 가능하다고 한 거지.
해설	(나)의 '옌푸'와 '천두슈'는 '과학 정신'의 이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비로소 민주 정치로의 변화라는 '정치적 변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정반대로 이해한 내용이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나)에 나온 또 다른 사람인 '장권마이'는 애초에 '정치적 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에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겠구요.

⑤ (나):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명시적 근거	(나) 4문단 1번 문장, (나)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장권마이!
해설	'장권마이'의 주장 그 자체죠? 그는 근대 과학 문명은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강조했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8%	13%	9%	54%

5.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가)의 화제 그 자체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왕→국가 구성원→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근대 주체'로 그 행위 주체가 변해 왔던 개념이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가볍게 답을 골라봅시다.

①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 있었다.

명시적 근거	(가)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통치자의 통치 행위'였습니다. 이 개념은 '갑신정변' 이후 변하게 되었죠.

②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한성순보'에서 말하는 '개화'는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둔 선지죠? 구체적으로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였어요.

③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2번 문장, (가)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개화'의 실행 주체가 '왕'이 아니게 된 것은 '갑신정변' 이후였습니다. 그 전에 발간된 '한성순보'(애초에 왕인 고종이 발간한 것이죠.)나, 그 전에 활동했던 개화당의 한 인사는 모두 '왕'이라는 통치자를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했었죠.

④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납득했던 내용이네.
해설	'갑신정변'에 이르자, '왕'은 더 이상 '개화'의 실행 주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때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 및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죠?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미리 납득했던 내용이니, 빠르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해요.
--	---

⑤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성순보에서도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식으로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시도했었는데?
해설	'대한매일신보'에서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개화 개념'으로 삼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발간된 '한성순보'에서도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를 '개화 개념'에 내포시켰었죠? 이를 1문단의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와 연결지어 납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지문에서 '납득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선지 판단을 빠르게 해내는 것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임을 잊지 맙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8%	67%	7%	9%

6. (나)의 '천두슈'와 '장권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공통점 문제입니다. 미리 답을 생각해놓고 갑시다. '천두슈'는 '과학'이 최고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과학'의 근거 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장권마이'는 '과학적 방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했죠?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은 '과학적 방법 자체는 의미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찾아봅시다.

①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2번 문장, (나)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장권마이는 동의 못하지.
해설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한 '천두슈'는 당연히 동의하겠지만, '인생관의 문제'는 중국 전통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장권마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네요.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죠?

②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3번~4번 문장, (나)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장권마이는 전통 사상 좋아한다니까!

해설	<p>일단 '천두슈'는 '전통 사상의 폐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옌푸'가 주장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천두슈'가 '옌푸'의 입장을 이어받았다고 했으니, '천두슈'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p> <p>하지만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주장한 '장권마이'가 '전통 사상의 폐단'을 언급할 리가 없겠죠? '장권마이'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답으로 고를 수가 없는 선지입니다.</p>
----	--

③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4번 문장, (나)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죠?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1차 세계 대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천두슈'는 이를 그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최악의 결과라고 말했고, '장권마이'는 '과학'을 사용하는 주체의 책임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말했어요.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연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1번~2번 문장, (나)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장권마이가 기겁하겠네.
해설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당연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은 신문화 운동을 주도했던 '천두슈'가 당연히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장권마이'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죠?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1번~2번 문장, (나)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니 계속 똑같은 선지네.
해설	정답인 3번 선지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천두슈'는 당연히 동의하겠지만, '장권마이'는 동의하지 못하겠죠. '장권마이'는 사상, 즉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으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27%	33%	13%	20%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박은식'과 '천두슈'의 주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수용하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고쳐 쓰자고 주장한 '박은식'과, 모든 것을 '과학'을 기반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한 '천두슈'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6번~7번 문장, (나)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두슈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설	'박은식'이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을 이끈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천두슈'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할 리가 없죠. '천두슈'는 모든 것을 '과학'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으니까요.

②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3번~4번 문장, (나)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p>'박은식'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 즉 '대한 자강회'의 한 인사가 보여준 인식이 반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개화 개념의 행위 주체'라는 (가)의 화제와 직결되는 정보였으니,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던 것이죠?</p> <p>나아가,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 역시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야 공상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겠죠.</p> <p>결국 '개화 개념의 행위 주체'라는 화제, '모든 것을 과학으로 본다'는 핵심 주장을 선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p>

③ ㉠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6번 문장, (나)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박은식도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긴 했지.
해설	<p>‘박은식’이 철학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과학’을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을 수용하는 것 역시 강조하면서,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박은식’의 입장이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p> <p>한편, ‘천두슈’는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계속 이 한마디만 반복하고 있죠? 따라서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 철학 따위는 없다고 주장하겠죠.</p>

④ ㉠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3번~4번 문장, (나)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두슈도 저렇게 주장했는데?
해설	<p>‘박은식’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일본을 추종하는 ‘대한 자강회’의 한 인사가 보여 준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네요.</p> <p>한편, ‘천두슈’는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최악의 결과라고 보았어요. 이는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p>

⑤ ㉠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5번 문장, (나)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두슈는 과학이 짱이라고 생각한단니까?
해설	<p>일단 ‘박은식’은 ‘과학’이 문명의 물질적 측면을, ‘철학’이 문명의 정신적 측면을 이룬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p> <p>한편, ‘천두슈’는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철학’ 역시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천두슈’의 입장에서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절대 동의할 수 없겠죠.</p>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8%	28%	17%	26%	11%

8.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 ‘정부가 주도하여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던 A 마을에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라는 보자마자 ‘통치자’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갑신정변’ 이전의 우리나라처럼, ‘통치자’가 ‘개화’의 행위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긴 했지만,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긍정적인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노력을 보였네요.

이후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격화된 경쟁에서 A 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은 낡은 관념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 그 덕에 A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상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과거에 중시되었던 전통문화는 낡은 관념,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어요. 마치 중국에서 ‘옌푸’와 ‘천두슈’ 같은 사람들이 득세할 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지문과 연결시켜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2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 <보기>에선 그냥 자신감 심어주려고 한 건데?
해설	<p>(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의 미래상을 홍보한 것은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던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였죠? 두 정책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p> <p>충격적인 정답률에 비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 문제의 답을 왜 제대로 골라내지 못했을까요? 답이 1번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다면 <보기>의 내용을 단순히 지문과 연결짓는 걸 넘어 독립적인 ‘독해’를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보기>의 내용을 잘 독해했다면 정부가 왜 저런 미래상을 홍보했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학생들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지문과의 유사성</p>

만 대강 체크했기에 이 선지를 빠르게 답으로 고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기> 역시 꼼꼼한 독해의 대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

②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1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보기>에선 그저 잘 살아 보자는 것이었지.
해설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가 주장한 '개화 개념'은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는 '경제 발전'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③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5번~6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박은식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해설	선지에서 이야기하듯이,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보기>에서 젊은이들이 자문화에 대해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가치관 정립'이라는 목적을 가진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을 받아들인 '박은식'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철학'이 정립되지 않았기에 젊은이들이 전통문화를 경시한 것이라고 생각되겠죠.

④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다.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1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옌푸의 입장에선 정신적 자질도 중요하지.
해설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학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기>의 A마을처럼 기술의 수용만을 강조하면, 국민들이 '과학 정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옌푸'의 입장에서 이는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낳겠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나)에서 장권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군.

명시적 근거	(나) 4문단 전체,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장권마이는 인생관의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지.
해설	'장권마이'는 '인생관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기>의 A마을에서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상황은 '과학적 방법'이 아닌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죠. 결국 인물의 주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78%	1%	4%	14%

9.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 ① 다행히 비는 그사이에 그쳐 있었다.
- ② 우리 학교는 이번엔 16강에 그쳤다.
- ③ 아이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 ④ 그는 만류에도 말을 그치지 않았다.
- ⑤ 저 사람들은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즐기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③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문 내용 총정리

지문의 내용을 곁핥기식으로 이해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 경우 선지 판단이 매우 힘들어졌을 전형적인 최근 기조의 지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쉬워 보이더라도 한 문장 한 문장 해야 할 '생각'을 하며 연결짓고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 과정을 잘 거쳤다면 대부분의 선지가 매우 빠르게 해결되고, 해설지를 보는 과정에서 정답률을 보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길 바랍니다. 핵심은 '한 사람은 한마디만 한다.'라는 인문 제재의 대전제를 바탕으로 정보량을 줄여 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 워크북 <결국, 다 같은 말이다.>

2025.11 [10~13] 기술 '영상 복원 확산 모델' ☆☆☆

1문단

①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 내는 인공 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②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④원하는 값만 들어 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⑤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⑥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①~② #정의 제시 #화제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인공 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라고 해요. 일단 이 지문이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화제를 인식한 상태로 2번 문장을 읽어 보니, '확산 모델'이 어떻게 저 기능을 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노이즈'를 추가하며 이미지를 '확산'해나가는 '모델'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③~⑤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때 '노이즈'는 '시끄럽고 거슬리는 소리'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정의를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원하는 값만 들어 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붙여 '확산'된 '이미지'를 만들고, 이 과정을 거쳐 결국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로 가득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했는지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도 있겠죠? 2번 문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몇 가지 개념의 정의만 추가하여 그대로 재진술한 것이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⑥ #기술의 구성 요소 #카테고리 나누기

이러한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기술의 구성 요소가 설명되고 있으니, 이제부터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피며 원리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나타날 것이니, 이 둘도 하나씩 카테고리를 만들어놓고 이해할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과학 · 기술 제재의 지문을 읽을 때는 초반부 정보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산 모델'이라는, 화제와 직결되는 기술의 작동 원리가 제시되고 있으니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정보가 확장될 것이니까요.

2문단

①**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②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③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④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⑤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⑥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⑦**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⑧**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①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먼저 '순확산 과정'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순'수한 '확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나아가 이를 통해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노이즈 예측기'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궁금해하며 읽을 필요가 있겠죠?

②~④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첫 단계입니다. '노이즈 생성기'가 '노이즈'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네요.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하는 방식으로 '연산'하는 것이 '이미지 연산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뒤 '노이즈 생성기'는 계속해서 '노이즈'를 '생성'하고, '이미지 연산기'가 또 '확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1문단에서 이해하고 있는 과정 그대로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납득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몇몇 개념들의 정의만 추가되고 있을 뿐이니까요. 심지어 그 정의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쉽게 이해되구요.

⑤~⑧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 즉 '노이즈 생성기'가 만들어낸 '노이즈'는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항상 똑같은 '노이즈'를 더하는 게 아니네요. 이에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입력받은 '확산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단어의 의미 그대로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네요.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은 '잠재 표현'이라고 부르네요.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어떤 '노이즈'의 특성인지 '잠재'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 '표현'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장에서 확인했듯이, '순확산 과정'의 핵심은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은 '노이즈 예측기'가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로부터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익히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네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봅시다. 1문단에서 파악한 '확산 모델'의 역할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이었습니다. '생성 및 변환'은 '확산 이미지'의 생성, '노이즈 이미지'로의 변환 등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노이즈 예측기'가 이렇게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이유는 '복원'을 위해서임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1문단에서도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예측할 수 있다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고도 했으니까요. 결국 모든 정보는 이렇게 화제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순확산 과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추가'뿐만 아니라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까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문단의 정보를 조직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3문단

①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중에서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 ②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③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킨다.

①~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러한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려 정의를 이해하면, '정답'을 제시하여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지도'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이즈 예측기'의 경우에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당연히 '정답'에 해당할 것이고, '노이즈 예측기'가 '잠재 표현'을 통해 예측한 '노이즈'가 '출력'에 해당하겠죠? 이 차이가 작아지게끔 '지도'하는 것이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4문단

①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②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에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다. ③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④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⑤확산 이미지에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①~⑤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역확산 과정'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한 것처럼,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네요. '확산 과정'을 '역'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열심히 '지도 학습'을 한 '노이즈 예측기'가 단계별 이미지 속 '잠재 표현'을 통해 '노이즈'를 예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를 뺀 '이미지'를 '연산'하여 새로운 '확산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반복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납득하고 있는 내용이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지문을 잘 읽었다면, 이 문장만으로도 4문단 전체의 내용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그 경지에 올랐길 바랍니다!

5문단

①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②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산 모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응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확산 과정'에서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통해 '노이즈'를 예측하기 때문에, 고유 번호를 붙여 원하는 '잠재 표현'을 입력시키면 원하는 '노이즈'만 제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총 4단계를 거쳐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일반적으로 '복원'할 때는 가장 나중에 입력한 '노이즈'부터 역순으로 제거해나가지만 2단계 '노이즈'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가 붙어 있다면 이 고유 번호를 입력하여 2단계 '노이즈'만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나왔다면 스스로 예시를 만들어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해요!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당연히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잠재 표현'은 '노이즈'의 특성을 수치화한 것이니까요. 이 경우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결국 '확산 모델'은 단순히 원본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꾼 뒤 그대로 복원하는 것 외에 아예 다른 이미지로 '변환'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문은 '순확산 과정'을 통해 영상의 '생성'을, '역확산 과정'을 통해 영상의 '복원'을,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통해 영상의 '변환'을 설명하는 구조였네요. 이렇게 모든 정보는 화제로 모인다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문을 장악해보세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5%	64%	9%	7%

10.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독특한 형태의 발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확산 모델이 지도 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도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문단 내용 그 자체네.
해설	3문단에서 '확산 모델'은 '지도 학습'을 사용한다고 소개하며, '노이즈 예측기'가 이를 통해 학습하는 법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며 읽는 것은 아주 적절하네요.

②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며 읽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6번 문장, 2문단 1번 문장,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잘했네.
해설	우리고 했던 생각이죠? 사실 당연히 '순확산 과정'이 선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1문단에서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의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했으니 어느 과정이 먼저인지 살피며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 것은 아주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③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읽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이즈의 종류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
해설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지문에 제시된 적이 없는 내용을 이해하며 읽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④ 잠재 표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읽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6번~7번 문장, 4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잠재 표현 잘 이해했네.
해설	'잠재 표현'은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할 수 있게끔 수치화된 것입니다. 이 개념을 파악하고 원리를 이해한 것은 훌륭한 독서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가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6번 문장, 2문단~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구성 요소 중요하지.
해설	기술 지문에서 '구성 요소'가 제시되면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선지입니다. '확산 모델'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했더니 깔끔하게 이해되는 경험을 했었죠? 이 학생도 그런 경험을 했나 봐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0%	7%	20%	18%	5%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3번 문장,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역확산 과정에서는 노이즈를 만들 필요가 없지.
해설	'노이즈 생성기'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노이즈'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노이즈'를 생성하여 이미지를 '확산'하는 것은 '순확산 과정'이었어요. '역확산 과정'에서는 '노이즈'를 예측하며 제거해야 할 뿐, '생성'할 일이 없기 때문에 '노이즈 생성기'가 작동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확산 모델'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네요.

②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학습은 순확산 과정에서 하고, 역확산 과정 때 배운 걸 써먹는 거지.
해설	'순확산 과정'의 정의 자체가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노이즈 예측기'는 '순확산 과정'에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연습을 한 다음, '역확산 과정'에 투입되는 것이었죠?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번에 지워내야 합니다.

③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이즈 예측기가 왜 이미지를 출력하냐.

해설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를 바탕으로 ‘연산’하여 ‘확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노이즈 예측기’는 이 과정에서 ‘노이즈’를 예측할 뿐이예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각 구성 요소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

④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학생이 낸 답이 정답으로 사용되는 꼴인데 무슨.
해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합니다. 당연하죠? 실제로 만들어 준 걸 ‘정답’으로 하고, ‘노이즈 예측기’가 예측한 걸 ‘출력’으로 해서 이들의 차이를 줄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선지가 맞는 선지라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⑤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성이 줄어든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역확산 과정은 복원하는 단계인데 무슨 소리아.
해설	‘역확산 과정’은 단계를 반복하며 ‘노이즈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즉, 중간에 만들어지는 ‘확산 이미지’는 점점 원본 이미지와 유사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선지임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9%	15%	10%	59%

12.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잠재 표현’은 ‘노이즈 이미지’ 및 ‘확산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노이즈 예측기’는 이를 통해 ‘노이즈’를 예측했어요. 나아가 여기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가볍게 해결할 수 있겠죠?

①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 내용이자, 우리가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	--

②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가 다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잠재 표현을 통해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지.
해설	미리 생각한 것처럼,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통해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당연히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도 다르겠죠.

③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연히 이것도 배워야지.
해설	‘확산 모델’의 학습은 곧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입니다.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통해 ‘노이즈’를 예측하기 때문에,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은 당연히 학습해두어야겠죠. 2문단 8번 문장의 직접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도, ‘확산 모델의 학습’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④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이즈가 다르면 잠재 표현도 달라지겠지.
해설	‘잠재 표현’은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잠재 표현’은 다른 값들이 얻어지겠죠. ‘잠재 표현’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⑤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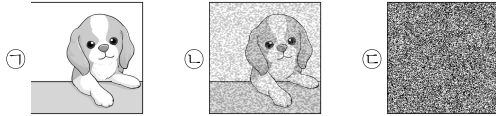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가 어딤냐.
해설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그로부터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애초에 원본 이미지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인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기 때문에, 이로부터 ‘노이즈’를 추출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1%	43%	17%	23%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③

A 단계는 확산 모델 과정 중 한 단계이다. ㉠은 원본 이미지이고, ㉡은 확산 이미지 중의 하나이며, ㉢은 노이즈 이미지이다. (가)는 이미지가 A 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이고, (나)는 이미지가 A 단계에서 출력되는 부분이다.

(가) ⇨ A 단계 ⇨ (나)



- A 단계는 '확산 모델' 과정 중 한 단계라고 했으니, '순확산 과정'일 수도 있고 '역확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으로 가는 건 '순확산 과정', ㉡→㉠으로 가는 건 '역확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각 과정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에 노이즈를 더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본 이미지가 입력되었으니 노이즈를 더해야지.
해설	㉠은 원본 이미지입니다. 이를 (가)에 입력했으니, A 단계는 '순확산 과정'일 것입니다. 원본 이미지는 '역확산 과정'을 통해 '복원'할 수 없니까요. '순확산 과정'에서는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더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선지화시켜두었네요.

②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나온 거면 순확산 과정을 거친 거네.
해설	(나)에 ㉢이 출력되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되었다는 것, 즉 '순확산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순확산 과정' 자체를 제시하는 선지이기에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③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었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순확산 과정에선 노이즈 생성기가 만든 노이즈를 입력하지.

해설	A 단계를 '순확산 과정'으로 정한 상황에서 (가)에 ㉡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럼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가 ㉡에 입력되어 ㉢이라는 '노이즈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지요?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를 활용하는 것은 '역확산 과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 '노이즈'를 ㉡과 같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제거하여 ㉠과 같은 원본 이미지로 '복원'하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④ 역확산 과정에서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에서 노이즈를 빼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이번엔 A 단계를 '역확산 과정'으로 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에 ㉢이 입력되었어요. 그럼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를 '이미지 연산기'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시도하겠지요?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⑤ 역확산 과정에서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었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A 단계를 '역확산 과정'으로 정한 상황에서 (나)에 ㉡이 출력되었습니다. 이는 (가)에 ㉢이 입력되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의 '노이즈'를 '이미지 연산기'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으로의 '복원'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4번 선지와 똑같은 걸 묻고 있어요. 정말로 똑같은 선지로 느껴져야 합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초반 정보 견디기 :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정보를 잔뜩 던지고, 후반부에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부의 정보만 잘 견디면 뒤에서 편해집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기술의 목적을 화제로 제시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리를 '구성 요소의 역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아주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었습니다. 나아가 1문단, 2문단, 4문단은 사실상 같은 말로 이루어진 재진술의 향연이기도 했어요. 실력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는 지문이니, 정말 쉽다고 느껴질 때까지 열심히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생각의 전개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

2025.11 [14~17] 인문+사회(법) '인터넷 ID의 명예훼손'

☆☆☆

1문단

①리프킨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②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①~② #주장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리프킨'이라는 사람의 주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이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마치 '연극'을 하듯이 연기를 한다는 건데, 이 연기는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전자는 '표면'의 형식에만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을, 후자는 내면의 '심층'적인 정서를 불러내며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이 '리프킨'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연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많이들 해 본 생각일 테니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③ #화제 제시

'리프킨'은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연기'를 하며 '자기표현'을 더욱 활발히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결국 이 지문은 단순한 '자기표현'이 아닌 '인터넷에서의 자기표현'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제를 인식한 상태로 계속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특정 개념을 소개한 뒤 그 개념을 어떤 상황에 국한시키고 있는 경우, 그 상황에 해당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화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억지로 유형화시키며 정리하기 보다는, 그냥 왠지 이 부분이 화제인 것 같다는 감이 생기면 좋겠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겁니다.

2문단

①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②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③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④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 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①~③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여러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인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서는 당연한 말이지요?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려 '자기 정체성'의 정의를 납득하고, '익명성'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가상 공간'의 특징을 통해 2번, 3번 문장을 납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어차피 '익명성'이 작동하니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 인터넷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상황이지요? 나아가 '리프킨'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서 '익명성'에 기대 '심층 연기'를 한다는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④ #수식된 정의 제시 #화제의 흐름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은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정체성인 '인터넷 ID'입니다. 지문을 보면, 이는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인터넷 ID'라는 개념 자체는 너무나 익숙하겠지만,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니 확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인터넷 ID'를 현실의 자아와 '개별적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예요.

이러한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 나는 현실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표현'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이 지문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터넷에서의 자기표현'이 현실의 자아와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으로 번지는 현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화제가 구체화되는 게 느껴지시죠? '사이버 폭력'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인식하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 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화제'를 인식하겠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장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화제가 구체화된다는 느낌을 받으며 앞으로 나올 정보를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으로 모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3문단

①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ID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②이는 인터넷 ID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③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④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ID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⑤반면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생성·변경·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ID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⑥인터넷 ID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인터넷 ID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문단

①~② #화제의 흐름 #수식된 정의 제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는 모르고 '인터넷 ID'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네요. '인터넷 ID'는 현실 속 자아와 '개별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인터넷 ID'가 '사회적 평판'으로 정의되어 있는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ID'도 '명예 주체성'을 가진다면 그에 대한 공격 역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볼 수 있으니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③~④ #주장 제시 #재진술

먼저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진짜로' 같은 말이 나왔으니, 그 정의를 끌고 와서 연결할 수 있어야겠죠? '자기 정체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입장은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이에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이 '인터넷 ID'에도 존재하기에 '명예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비록 '인터넷 ID'가 현실 속 자아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자아의 일부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생각했더니, 4번 문장이 쉽게 납득됩니다.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 역시 사용자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ID'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생각을 통해 문장을 리드하는 느낌을 받아야 해요.

⑤~⑥ #주장 제시 #재진술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ID'는 처분이 자유롭고 복수 개설도 가능합니다. 이는 그저 '가상 공간'에서 개인을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기에, 현실 속 개인의 '자기 정체성'과 연결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ID'는 개인과 구별되는 대상이고, 사람이 아니기에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③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진짜 화제를 제시하는 1번 문장도 중요하지만, '자기 정체성'이라는 '진짜로' 같은 말을 통해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 문장을 '하이라이트 문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처럼 익숙하지만 독특하게 정의된 개념의 정의는 더더욱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본인도 모르게 지문에서 제시한 방향이 아닌 스스로가 알고 있는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읽어서 지문을 오독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언가 중요해보이던 말이 반복되면 일단 멈춰서 연결한다는 태도를 갖

①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②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③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반면 인터넷 ID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① #주장 제시 #재진술

'대법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 중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는 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목된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를 안다면 말 그대로 현실 속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의 '인터넷 ID'와 연결되는 셈이고, 이에 '인터넷 ID'에도 '명예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앞문단의 내용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겠죠?

②~③ #주장 제시 #재진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다수 의견'의 경우, '인터넷 ID'의 사용자를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주장을 반대로 써 두었을 뿐이에요. '대법원'의 주장은 '피해자 신상 특정 가능 → 처벌'이고,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피해자 신상 특정 불가 → 처벌'이라고 써 둔 것일 뿐입니다. 이렇기에 '이를 수용했다'는 표현을 쓴 것이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④ #주장 제시 #재진술

그런데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ID' 자체가 '가상 공간'의 '성명'과 같은 역할, 이를테면 '자기 주체성'을 가진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네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래서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일까요? 지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가해자가 무조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결정, 즉 가해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도 무조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사이버 폭력'에 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한 상태로 마무리해야 해요.

결국 화제인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본다.'였네요. 이렇게 생각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문장을 새로운 정보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실력입니다. '대법원'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로 문장을 이해했다면, 결국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6%	4%	8%	8%	14%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표현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형식은 표면 연기지.
해설	'심층 연기'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까지는 맞는데, '형식에 집중'은 '표면 연기'의 정의였죠?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네요.

②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제로 이어지는 내용이었지.
해설	'리프킨'의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이라는 화제로 이어지는 흐름, 확실하게 체크하고 있죠?

③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제와 연결되는 내용이네.
해설	역시 화제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바타와 같은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문의 화제였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익명성'이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표현'하며 '자기 정체성'을 다양하게 나타낸다는 것, 완벽하게 납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 정체성의 정의네.
해설	'자기 정체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으니, 당연히 '가상 공간'에서도 이 정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지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이 선지화되었을 때는 이렇게 선지 속 핵심 개념의 '정의'부터 체크해보세요. 선지 판단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75%	6%	8%	6%

1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 인정하는 입장
㉡ 인정하지 않는 입장

- 완벽하게 납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은 '인터넷 ID'의 '자기 정체성'이 곧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터넷 ID'도 '명예 주체성'을 가진다는 입장이고, ㉡은 '인터넷 ID'는 사용자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기에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① ㉠은 ㉡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자기 정체성을 복잡한 것으로 보는데?
해설	㉠은 '자기 정체성'이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

	<p>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실 속 개인의 '자기 정체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네요.</p> <p>추가적으로 ㉡은 그저 개인의 '자기 정체성'과 '인터넷 ID'가 동일시될 수 없다는 말을 했을 뿐, '자기 정체성'이 단일하고 고정적인지 아니면 유동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p>
--	--

② ㉠은 ㉡과 달리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p>㉠과 ㉡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선지가 정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은 '인터넷 ID'의 '자기 정체성'이 곧 사용자인 개인의 것의 일부라고 보기에,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볼 것입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었죠?</p> <p>한편, ㉡은 '인터넷 ID'는 사용자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은 사용자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결국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발문을 보면서부터 할 수 있는 생각이어야 합니다.</p>

③ ㉡은 ㉠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겠군.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이 할 말이지.
해설	1번 선지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이건 ㉠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④ ㉡은 ㉠과 달리 인터넷 ID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3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언제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해설	㉡이 '인터넷 ID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이는 오히려 ㉠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지문에 있는 말들을 대충 조합한 선지에 주의하세요. 지문과 문제가 이것보다 더 어려워지면 충분히 낚일 수 있습니다.

⑤ ㉠과 ㉡은 모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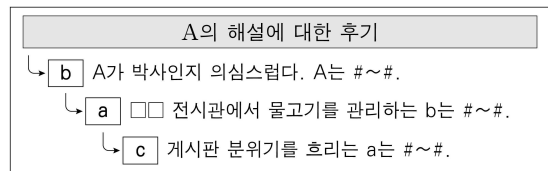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3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인터넷 ID에 그렇게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지.
해설	㉠은 '인터넷 ID'는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은 애초에 '인터넷 ID'가 개인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않죠? 그저 '가상 공간'에서 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이와 같은 진술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7%	30%	21%	22%	10%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②

○○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라는 ID를 사용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담당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 재밌는 문제입니다. 늘 하던 대로, <보기>에 사례가 제시되었으니 완벽하게 분석한 상태로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먼저 A, B, C는 실명이고, a, b, c는 '인터넷 ID'입니다. 나아가 A와 B는 경우에 따라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 ㉡와 ㉢의 입장을 가르는 데 있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나아가 선지를 쫓 보면 모두 ㉠~㉢의 입장에 대해 묻고 있으니,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식으로 <보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단, '#~#'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 B, C는 실명이다. ID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으며, A, B, 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후기를 보니, B는 A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소신 있게 모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의 그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될드가 불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한 A 역시 B를 특정할 수 있게끔 댓글을 단 상태입니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서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기에, 저렇게 직무를 공개해버리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역시 ㉠~㉢의 그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범죄 행위로 인정할 것입니다.

한편, C는 A의 '인터넷 ID'만을 언급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a가 A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㉗와 ㉘에서는 C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㉙의 입장에서는 C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A	B	C
㉗	법적 책임 O	법적 책임 O	법적 책임 X
㉘	법적 책임 O	법적 책임 O	법적 책임 X
㉙	법적 책임 O	법적 책임 O	법적 책임 O

이렇게 정리하면, 선지 해설은 굳이 해드릴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사례 제시형 <보기> 문제는 이렇게 <보기>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로 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중간에 생각이 꼬여 버리면서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법 지문의 <보기> 문제는 90% 이상의 확률로 사례 제시형이니, 이런 형태의 풀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 ① ㉗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② ㉘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③ ㉗와 ㉘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④ ㉗와 ㉘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⑤ ㉗, ㉘, ㉙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2%	91%	2%	2%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 완성(完成)된다고
- ② ㉡: 요청(要請)하여
- ③ ㉢: 표출(表出)된다고
- ④ ㉣: 기만(欺瞞)하고
- ⑤ ㉤: 확충(擴充)되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화제를 점점 구체화하며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찾게끔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재진술'이라는 포인트를 통해 정보량을 줄이고 문단을 연결짓는 연습을 하기에 좋았죠? 여기에 사례 제시형 <보기> 문제를 다루는 방법까지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지문이 어려워도 괜찮지만, 수능날에도 이 정도 지문이 어렵다고 말하는 a는 #~#.

생각의 전개 <고전소설 클리셰>

2025.11 [18~21] 고전소설 '정을선전' ☆☆☆☆

<보기> 확인

<학습 활동>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뒷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전형적인 고전소설입니다. 어떤 ‘모략’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읽어보면 되겠죠?

<보 기>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나아가, 이 작품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의 클리셰를 활용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를 모두 기억하고 지문 독해에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속도보면서 대충 파악한 다음 가능한 만큼만 적용하며 읽어보도록 합니다. 더 깊은 적용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문 독해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정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지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앞부분의 줄거리]에 많은 정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 복잡한 인물 관계와 사건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해보이죠? 먼저, ‘정을선’(=승상)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총렬부인’이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가정소설의 클리셰처럼 부인들 간의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자살)했다고 합니다. ‘금섬’은 ‘총렬부인’의 편이었나 보네요. 그렇게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뜬금없이 ‘월매’를 문초합니다. 왜 ‘월매’한테 난리를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자세한 사정이 나올 것이니 기다려봅시다.

한편, ‘정을선’은 전장에서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금섬’을 비롯한 가정 내 갈등에 대한 것이겠죠?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로, 아니 거의 암기한 상태로 지문을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어요!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 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

상상력의 한계가 그사람의 한계가 된다.

에 인술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다이다.”

갑자기 화가 난 ‘원수’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인물인가 싶었는데, ‘원수’는 편지를 쓴 ‘호첩’에게 사정을 듣고 ‘중군장’에게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나중에 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면, ‘원수’가 곧 ‘승상 정을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때 ‘왕비’는 자신의 시비인 ‘월매’를 문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죽여달라고만 하고 있는데요. ‘월매’의 입장에 공감해보면,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왕비’에게 입을 열 수 없나 봅니다. ‘월매’의 강직한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나아가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월매’ 역시 ‘금섬’처럼 ‘총렬부인’의 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물에게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물관계가 잡혀야 해요!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문왈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나?”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나?”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왕비’는 ‘월매’의 목을 베라 하는데, 그 순간 ‘승상’이 나타나 급히 소리를 지르며 이를 말립니다. 다짜고짜 ‘월매’에게 ‘총렬부인’이 어딤냐고 묻는 것을 보니, ‘호첩’에게 들은 내용은 곧 ‘총렬부인’이 위험하다.’였나 보네요. ‘월매’는 그제서야 입을 열고 ‘총렬부인’을 살리라고 울부짖습니다.

한데 급히 쫓음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녕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환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아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죄온대 왕비 못내 만기시며 사연을 날 낚이 이르시되 승상 왈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그렇게 급하게 ‘월매’와 함께 ‘총렬부인’을 찾아가 보니, ‘총렬부인’은 구덩이에서 잠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총렬부인’은 기뻐하며 누명을 벗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 표시한 ‘서술자의 개

입 부분을 보면, '총렬부인'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정을선'은 '왕비'에게 '총렬부인'을 데려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는 '왕비'의 말을 끊으며 자신이 다 알고 있으니 격정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호첩'에게 들은 바가 있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나아가, 이때 '정을선'이 '소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왕비'는 '정을선'의 어머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하며 왈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이 옥졸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졸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문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이제 '정을선'이 천천히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놈'이라는 인물이 '총렬부인'의 방에 간 것이 사건의 발단인 것 같은데, '왕비'는 자신의 '사촌 오라비'에게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을선'이 '복록'을 찾는 것을 보니, 그 '사촌 오라비'가 '복록'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복록'은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옥졸'을 잡아들인 '정을선'은 뜬금없이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사건의 전모를 모르는 우리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차분하게 '옥졸'의 말을 들어보니, 얼굴이 상하여 누군지 못 알아봤지만 천하일색이라던 소문과는 달리 손이 곱지 않아 자신들끼리 수군였고, 이를 '정렬부인'의 시비인 '금연'이 듣고서 발설했다고 하네요.

[앞부분의 줄거리]와 엮어 내용을 정리하면, 옥에 갇힌 '총렬부인'을 '금섬'이 피신시킨 뒤 자신을 '총렬부인'으로 위장하여 자진했고, 이를 알게 된 '금연'이 '정렬부인'과 '왕비' 등에게 알려 '총렬부인'을 다시 찾게끔 한 것이었네요. 이 과정에서 '월매'가 문초를 당한 것이구요. 시간을 좀 쓰더라도 이렇게 파편적으로 흩어진 정보를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인물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의 근거를 생각하면서 말이예요.

한대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 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날날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양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

나니 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이에 '정을선'은 '금연'을 잡아들여 호통을 치는데, '정렬부인'은 이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집니다. 조금 더럽기는 하지만, 그만큼 '정을선'이 크게 화가 났고 '정렬부인'이 겁에 질렸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겠죠? '금연'은 어쩔 수 없이 사연을 낱알이 고합니다. 정리하면, 아픈 척하는 '정렬부인'을 간호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총렬부인' 몰래 '금연'이 남장하여 '총렬부인'의 침소로 들어갔고, '정렬부인'이 다시 '총렬부인'에게 침소로 돌아가라고 하여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를 '복록'이 '왕비'에게 말해 '총렬부인'을 모함한 것이었네요.

사건의 진상을 들은 '총렬부인'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정을선'은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면서 말리는 상황이에요. 이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걸박하여 땅에 꿰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총렬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오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처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우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연이 흥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날날이 아뢰었다.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정을선'은 크게 화가 나 '정렬부인'에게 호통을 칩니다. 기본대로라면 죽이고 싶으나 '황상'에게 아뢰어 죽게 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예요. 이에 '정을선'은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 자신이 '서용'을 치면서 공을 세우는 와중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클리셰를 생각하면, 악인인 '정렬부인'의 최후는 비참하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43%	24%	10%	12%

18. ㉠,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얽려 마옵소서.”

㉡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 ㉢은 '정을선'이 '호첩'에게 받은 편지의 내용을 통해 사건의 대강을 알고 있으니 알아서 하겠다고 '왕비'에게 말하는 부분이고, ㉢은 본격적인 사건의 조사를 위해 '왕비'에게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복록'을 매개로 하여 사건의 진실에 근접하게 되었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을 골라봅시다.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연히 관련이 있겠지.
해설	'정율선'이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편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비'가 '사연'을 이야기하자 다 알고 있다며 말을 끊는 것으로 보아, 그 '연고'의 내용이 '왕비'가 말하는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하나의 사건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이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상소는 사건의 진상이고, 이미 아는 바는 사건의 대강인데 어떻게 같냐.
해설	'정율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은 '정렬부인'과 '금연'의 악행에 대한 것입니다. 한편 '이미 아는 바'는 '총렬부인이 고난을 당하였다.' 정도의 대략적인 내용이죠? 따라서 이 둘이 같다고 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애초에 둘이 같다면 '정율선'이 사건을 조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충 비슷한 내용이기엔 틀렸다는 생각을 못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정율선'이 왜 사건을 깊게 조사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에 공감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소설의 핵심은 '심리와 행위의 근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해설	'정율선'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왕비'에게 ㉢을 묻습니다. 이는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가장 먼저 물어봤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 당연히 허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복록이었지.
해설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면,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은 '왕비'의 사촌 오라비인 '복록'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선지네요.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니까 죽었지.
해설	'복록'이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죽어버립니다. '죄를 알고'와 같은 표현을 근거로 하면, '복록'이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은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5%	9%	64%	7%

19.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누명'은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인해 '총렬부인'이 쓰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 지문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니,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건 왕비였는데?
해설	'누명'이 벗겨지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한 것은 '누명'을 썼던 '총렬부인'이 아니라 '왕비'였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으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죠?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누가 그런 요청을 했냐.
해설	'총렬부인'이 '정렬부인'의 처벌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정율선'이 처벌을 유보한 것은 '황상'에게 보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 헛소리야.
해설	'누명'의 내용은 '총렬부인'이 자신의 침소에 남자를 들인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총렬부인'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던 것은 맞지만, 이것은 '누명' 그 자체가 아니라 '누명'으로 인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야겠죠?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침소로 돌아가게끔 했지.
해설	'정렬부인'은 아픈 척하는 자신을 간호하는 '총렬부인'이 자신의 침소로 다시 돌아가게끔 유도합니다. 이는 남장을 하고 있던 '금연'과 함께 방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사건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지문 속에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답으로 고르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누명이 벗겨지고 나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지.
해설	'금연'에 대한 취조의 결과로 '총렬부인'의 '누명'이 벗겨지자, '왕비'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고 '정렬부인'은 이를 말립니다. 이런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이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라는 해석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7%	5%	22%	14%	12%

20.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① 원수	중군장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용은 이미 사로잡았다고 했는데?
해설	'원수', 즉 '정렬부인'이 '중군장'에게 한 명령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을 보면 '정렬부인'은 이미 '서용'을 사로잡은 상태였어요. 마지막까지 '상소'의 내용에 주목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네요.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② 승상	월매	A가 B에게 총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정렬부인'은 '월매'에게 '총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고, '월매'는 자신이 걷지 못해서 갈 수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③ 옥졸	금연	B가 A로부터 옥중 시인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리고 그걸 발설한 거지.
해설	'옥졸'은 옥중 시인의 손이 곱지 않아 '총렬부인'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들은 '금연'이 여기저기 발설하고 다닌 바람에 '총렬부인'에게 2차 위기가 닥친 것이죠? '옥졸'의 진술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네요.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④ 옥졸	승상	A가 B에게, 금연이 옥중 시인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번 선지랑 이어지는 거네.

해설	3번 선지의 내용과 이어지네요. 3번 선지 '해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선지죠?
----	---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⑤ 금연	승상	B가 A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알아 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금연'의 말에 따르면, '정렬부인'은 '총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으로 알아 늡습니다. 이는 '정을선'에게 그대로 전해졌으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6%	24%	48%	16%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①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를 보면 대원수로서 '서용'을 쳐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와 가정 속 '정렬부인'으로 인해 일어난 이야기를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근거로 하면, 이는 가정 안팎의 서사가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게끔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② 승상이 총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뭐.
해설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총렬부인'의 모습, 이에 '통곡'하는 '정을선'의 모습 등은 모두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③ 왕비가 '양친통곡'하는 장면에서, 총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렬부인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해설	<보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소설이 그러하듯이, 부인 간의 갈등은 일부다처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렬부인'이라는 악녀의 탓으로 드러내면서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하고 있네요. <보기> 역시 허용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④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월매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해설	'월매'는 그저 자신도 죽여달라고 했을 뿐,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월매'가 처음 입을 연 것은 '정을선'이 도착한 뒤였어요. '월매'의 강직한 성격을 파악하며 읽었다면 이 장면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겠네요.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회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똥을 썼다는데 회화화된 거지.
해설	'정렬부인'은 시비를 부리는 것, 나아가 가장인 '정을선'의 부인이라는 것 등을 고려하면 가정의 상층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였으니, 이를 근거로 하면 '회화화'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③ 고전소설 클리셰 : 일관된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지만, 악인과 선인의 구도가 두드러집니다. 나아가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결국 보상을 얻어요. 이러한 클리셰를 알고 있다면 지문의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사건에 대한 정보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독해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만 하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지문은 2025학년도 EBS 연계지문에 있던 작품이었고 출제 가능성이 높아 많은 학생들이 미리 공부했던 지문이었는데, 그럼에도 정답률이 낮게 나온 것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줄거리를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물에게 공감하고 여러 정보들을 연결지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줄거리를 잘 외우고 있어도 수능날 결국 문제를 틀리게 될 것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생각의 전개 <운문문학 해결하기>

2025.11 [22~27] 현대시+수필 '배를 밀며 / 혼자 가는 먼 집 /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

<보기> 확인

—<보 기>—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써 형상화한다.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 내는 역할을 한다.

(나)에 대한 <보기>입니다. 대놓고 화자의 내면세계를 제시하고 있으니, 고맙게 읽어보아야겠죠? (나)는 독특한 발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있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생생하게 그려 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그 속에서 상실의 고통을 느끼는 화자. 이렇게 이중적인 내면세계를 가진 화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 넘어가봅시다.

—<보 기>—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이번엔 (다)의 주제 그 자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글쓴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 속에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에는 간극이 있고, 이로부터 발생한 '부끄러움' 때문에 이런 식의 편지는 지속될 수 없다고 해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홍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보기>가 없습니다. 스스로 화자의 내면세계라는 주제를 잡을 수 있어야 해요. 화자는 '배'를 미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를 '사랑'을 떠나보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를 밀어내듯이 '슬픔'도 밀어내고, '홍터'는 잠시 머물다 가라앉아 버리지만, 다시 '배'는 화자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는 <보기>를 통해 미리 확인한 (나)의 주제처럼, 깔끔하게 이별을 맞이하려다가도 미련이 남아 있는 이중적인 내면세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읽어내도 훌륭하겠어요.

(나)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킁킁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밝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릴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킁킁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킁킁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 치병: 병을 다스림.

* 환후: 병을 정중하게 이르는 말.

'킁킁'과 같은 우스운 표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차분하게 <보기>를 적용하며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당신'이라는, 사랑의 상대를 떠올리면서 좋다는 표현을 화자입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알 수 없는 말들을 니열하며 기억을 떠올리던 화자는, 결국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과 같은 표현으로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파악해놓고, 자세한 건 선지 판단 과정에서 확인해보도록 해요.

(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

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역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일인데, '그' 역시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이리저리 표현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기>를 통해 미리 확인했듯이,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아요. 즉, 편지는 그저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진정으로 상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편지는 '그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여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만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다.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너무 뻘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편지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2인칭을 경유하여 다시 '나'라는 1인칭으로 돌아올 뿐이에요. '편지 속의 그'라는 이상화된 모습을 만들어놓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 고백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녀'는 물론 '그'도 매료시키지만, 너무 뻘하고 지리멸렬한 시간들, 즉 일상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이상화된 '그'의 모습을 잊습니다. 편지 속에서 달콤하게 속삭이던 것과는 달리 일상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그'의 모습이 된다는 의미겠죠.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뺏속 깊이 실감했다. 그는 '사랑하는 ○○'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 자신 속의 어떤 늙지 않는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악이다.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 즉 '그녀'에 대한 표현의 욕구가 들끓지 않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갔을 때, '그'는 자신의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보기>에서 말한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그대로요? 글쓰는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은 위선이 아니면 위악이라며, 즉 어찌 되었든 거짓일 뿐이라며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제가 명확하기에 읽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3%	5%	88%	2%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하강적 이미지를 언제 찾고 있어. 일단 넘어가자.
해설	(가)의 훑터가 가라앉는다는 표현 등에서 '하강적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이 머물다가 가라앉았다고 했으니 그동안의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와 (다)에서는 딱히 '하강적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네요. 시험장에서 '하강적 이미지'를 찾아보겠다고 시간을 쓰는 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처럼 일단 넘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②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랑 너무 먼데?
해설	'자연물'이야 당연히 여기저기 나오겠지만,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은 (가)~(다)의 주제를 고려하면 너무 뜬금없죠? (가)와 (나)는 '이별'이라는 부정적 현실과 이에 대한 슬픔이라는 반응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를 극복해보려는 가능성을 모색하지는 않았고, (다) 역시 '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작품일 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보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제와 무관하면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해요.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상황의 반전은 뭔가 찝찝하네.
해설	(가)의 경우, 마지막 면에서 '들어오는 배여'라는 구절을 반복하고 변주하며 '훑터'가 가라앉았던 화자의 마음에 다시금 사랑의 기억이 밀려들어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고 할 여지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이걸 찾는 건 쉽지 않지만요. (나)의 경우, '킉킉'과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변주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자체가 '상'

	<p>황의 반전'을 표현하지는 않죠? '상황의 반전'을 표현하는 것은 ㉓ 앞에 있는 '그러나'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p> <p>(다)의 경우에도 열심히 편지를 쓰던 '그'가 편지를 쓰지 않게 되는 등의 '상황의 반전'이 나타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동일한 표현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나타나는 않죠?</p> <p>엄밀하게 풀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만, 주제와도 무관하고 미시적인 포인트인 '상황의 반전'과 같은 말을 보고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p>
--	---

④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배를 밀고, 불러보고, 편지를 쓰면서 주제를 드러냈다.
해설	3번 선지와 달리,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표현에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세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꼼꼼하게 판단해보니, (가)의 경우 '배'를 밀는 행위, (나)의 경우 '당신'을 불러보는 행위, (다)의 경우 '편지'를 쓰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가)와 (나)는 화자와 이별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는 '그'와 편지를 받는 '그녀'와의 관계를 말이에요. 조금 미시적인 포인트에서 답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제'와 직결되는 포인트라는 점에서 충분히 맞혀낼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간의 이동이 어땠나.
해설	(가)~(다) 모두 '공간의 이동'을 찾아볼 수는 없죠? '역동적 분위기' 역시 (가) 정도를 제외하면 너무나 어색한 표현이구요.

선지 선택률	① 2%	② 4%	③ 3%	④ 5%	⑤ 86%
--------	------	------	------	------	-------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①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p>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p>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극적인 순간, 아슬아슬. 충분히 긴장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해설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이라는 극적인 순간에 화자의 '손'은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집니다. 이는 이별하는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여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황을 상상해보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봐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p>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봐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p>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이지도 않으면 막막하지.
해설	'사랑'이 '봐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 떠난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 이것이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다는 건 정말로 막막한 상황이니까요.

③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계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p>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p>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밀어내는 건 떨쳐 내려는 거지.
해설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죠? '슬픔'을 마치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는 것처럼 밀어낸다는 것은 그 아픔을 떨쳐 내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를 미는 행위가 '사랑'을 떠나보내는 행위를 비유한다는 것만 체크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들이네요.

- ④ '배가 나가며 생긴 '홍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홍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홍터가 가라앉았다는데 당연한 말이네.
해설	역시 선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홍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로 인한 상처가 가라앉아 잦아들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 ⑤ '밀려들어' 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자의 안으로 들어온 건데 재회가 아니지.
해설	화자는 이미 '배'를 밀어 보냈습니다. 즉 사랑을 떠나 보낸 것이죠. 그런데 '배'가 화자의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의 '배'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배'로 표현된 사랑의 기억이 화자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온 것으로 이해해야겠죠? 즉, 대상과 재회를 한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그리움이 갑자기 사무쳤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배'가 돌아왔다고만 되어 있었다면 애매했겠지만,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근거로 해서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79%	6%	8%	3%

24.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나)의 화자의 내면세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당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과의 기억을 회상하면서도 상실의 고통을 안고 있는 화자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 ①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이다.

킁킁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네.
해설	화자는 '한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적요로움'(외롭고 쓸쓸함)의 울음이 있었던 때인데, 화자는 이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나 봐요. 그리고 그때의 상처에 기대 화자는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의 상처 속에서 '당신'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당신'에게 의존하여 '한때'의 상처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독해의 결과를 근거로 하면 화자가 '당신'을 매개로 '한때'의 기억을 잇는다는 것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선지입니다. 단순히 '한때'가 '당신'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웠다면 반성하셔야 해요. 맥락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②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병자는 화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잖아.
해설	'병자'처럼 무덤에 벌초하러 가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나', 즉 화자입니다. 즉, 화자의 내면 자체가 '병자'와 같다는 의미이지, '병자인 '당신'이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주변 맥락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해요. 나아가 '당신'은 화자에게 있어 상처를 견딜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존재이자 그리움의 대상이지, '연민'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화자의 처지가 '당신'을 '연민'할 만한 처지는 아니니까요. 여러모로 허용하기 어려운 선지네요.

- ③ 화자의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이건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죠? '당신'은 화자와 이별한 상태이기에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이 작품의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	--

④ 화자가 '버릴 수 없'고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 존재이다.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다고 했네.
해설	화자는 '당신'이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고 '무를 수도 없는' 참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선지네요.

⑤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보기>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주제 그 자체죠? 가 법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82%	5%	6%	4%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②

① '킁킁'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로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슬픈 상황을 '킁킁'이라는 표현을 통해 최대한 승화 시켜보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이는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제 그 자체인 선지이기에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죠?

②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킁킁거리며 한때 적으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움의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히려 당신을 부르고 있는데?
해설	화자는 '상처'에 기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떠올리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 준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나아가,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에서 '말줄임표와 쉼표' 같은 독특한 발화 방식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말줄임표와 쉼표'를 통해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③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진 서술로서,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해설	처음 지문을 읽을 때는 의식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보니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져 있기는 합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 즉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들을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겠군.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마음이 무덤같다는 건 많이 힘들다는 거지.
해설	'마음의 무덤'은 화자가 표현한 자신의 내면세계입니다. 'A의 B'라는 표현법이 쓰인 것으로 보아, '마음=무덤'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대를 매혹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	--

⑤ ㉓와 ㉔는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잘 알고 있잖아.
해설	(나)의 화자는 자신의 '환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처가 '치병'으로 다룰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나아가 (다)의 '그' 역시 자신의 고백이 우선 또는 위약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죠?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7%	14%	14%	11%	4%

27.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㉑

①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군.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익명의 욕구는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지.
해설	여기서 말하는 '익명의 욕구'는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려는 것처럼 포장된, '이상화된 자신'에 대한 욕구입니다. <보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문 전체의 주제를 고려해도 그렇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강렬한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문 전체의 주제를 잘못 파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하는군.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주제 그 자체를 읊어주고 있는 선지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합니다.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와 '현실적인 목표', 즉 '그녀'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잊고 그저 '이상화된 그'가 있을 뿐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편지를 쓰게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③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됨을 말하는군.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중략)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이 역시 주제 그 자체를 멋지게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편지는 원래 '2인칭'으로, '그녀'에게 '그'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적'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2인칭'을 거쳐 '그'가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1인칭'으로 돌아올 뿐이었어요.

④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의 '또 다른 영혼'임을 말하는군.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죠?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그'가 편지 속에서 새롭게 만든 '또 다른 영혼'인 '편지 속의 그'였습니다. 아주 이상화된 모습의 '그' 말이예요.

⑤ '자신의 비루함을 뺏속 깊이 실감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군.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뺏속 깊이 실감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미리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상화된 자신과 실제 자신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있어요.

현대시 독해 연습

(가)

배를 민다
 배를 밀어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 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화자는 ‘배’를 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드문 경험인데,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넣고 있는 화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 다시 말해서 바닷물에 빠지기 직전에 있는 힘껏 ‘배’를 밀어 주고, 그렇게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두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배’를 밀고서 손을 거두고 멀어져가는 ‘배’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이때 ‘순간 환해진 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미는 동안에는 화자의 손 뒤의 배경이 ‘배’의 몸체겠지요? 이에 어둡게 느껴지겠지만, ‘배’를 밀고 난 후에는 손 뒤의 배경이 바다 위 지평선이 되기에 순간 환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비치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에서 ‘배’를 민다는 것은 ‘사랑’이 떠나는 것에 대한 비유였나 보네요. ‘배’가 떠나듯이,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납니다. 지평선 뒤 ‘비치도 않는 길’을 말이에요. 화자는 이렇게 ‘사랑’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도 미련없이 힘껏 밀어내서 부드럽게 떠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흥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흥터, 이는 정확히는 ‘사랑’을 떠나보내고 화자의 가슴속에 남은 흥터일 것입니다. 이는 잠시 머물다 가라앉았어요. 이별에 대한 슬픔도 언젠가는 무뎠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화자의 안으로 ‘배’가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정말로 ‘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배’로 표현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화자의 내면세계 속으로 훑 들어오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별로 인한 강렬한 슬픔은 언젠가는 가라앉겠지만, 그리움은 오래도록 남아 가끔씩 심장을 쿵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화자의 통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었네요. 이 작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배를 매며’(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도 함께 감상해 보세요. 해당 작품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킁킁
 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

화자는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화자에게 ‘당신’은 아주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화자는 ‘한때 킁킁거리며 적요로움(외롭고 쓸쓸함)의 울음’이 있었던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처럼 악재가 겹쳐 오던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얻은 ‘상처’에 기대 화자는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다,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밝힌 풀의 흠으로 돌아감 당신……,

화자는 뜬금없이 여러 자연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힌 풀의 흠으로 돌아감 당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신’은 현재 죽은 상태임을 추론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단풍의 ~ 개망초의 시름’은 사람이 결국 죽어 흠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순환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학적 센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킁킁거리며 당신이라고……,

어쨌든 화자는 순환하는 자연처럼 흘러가는 ‘세월’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사랑과 상처’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상처의 몸’이 화자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즉 화자가 ‘상처’에 힘들어할 때 ‘당신’을 떠올리고 불러 보는 모습을 또 보여 주고 있네요. 화자에게 이미 죽은 ‘당신’은 정말 의지가 많이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렇기에 ‘당신’을 ‘그

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금방 올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 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킁킁 당신 이쁜 당신……,

- * 치병 : 병을 다스림.
- * 환후 : 병을 정중하게 이르는 말.

화자가 떠올리는 ‘당신’의 모습은 ‘금방 올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이 죽어 곁에 없으니 화자의 내면세계는 당연히 ‘마음의 무덤’ 그 자체겠죠? 화자는 이렇게 ‘병자’나 다름없는 자신의 내면을 ‘당신’의 ‘아름다움’에게 기대어 달래보고자 ‘벌초’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예요. 즉,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치유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결국 화자는 그저 ‘이쁜 당신’을 또 떠올려보거나 합니다.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참 좋은 ‘당신’은 화자 스스로가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무를 수도 없는 참혹한 이름입니다. 만약 그냥 화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잊으려고 노력도 해보는 등 다스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화자 밖의 존재이기에 버릴 수도 무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화자는 결국 ‘당신’의 부재로 인해 얻게 된 상처를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네요. 이런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킁킁’과 같은 표현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또 ‘내면세계 중심으로 독해하기’였어요. 그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많은 현대시를 경험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현대시 독해 :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그리고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③ 수필 독해 : 운문문학과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하고자 하는 말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필이 어렵게 출제될 것을 대비해, 독서 지문을 읽듯이 꼼꼼하게 읽으며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지문 내용 총정리

다소 난해한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보기>에서 주제를 친절하게 제시했고 선지의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아 답을 고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완전히 감상하고 모든 선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지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후자도 그리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워크북 <산문문학 해결하기>

2025.11 [28~31] 현대소설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

<보기> 확인

— <보 기> —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이후 배꼽을 둘러싼 회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독특한 설정이 담긴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은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로부터 개인적 상황, 인간 존재,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을 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 인물의 내면세계 위주로 서술될 것으로 보이네요. 너무 복잡한 내면세계만 아니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니 자신 있게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문 독해

불편스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 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 나갈 수 있었다.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비밀이 탄로 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인체 생리나 해부학 서적 같은 걸 뒤져 봐도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점만이라도 무척 다행이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그깟 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음 어때.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허원'이라는 인물의 배꼽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는 당연히 불편스런 일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허원은 아무에게도 그의 비밀을 들키지 않았고, 여러 서적을 통해 성인의 배꼽은 별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허원'의 입장에서 참 다행이고 안도할 만한 일이겠죠? 여러분도 갑자기 원래 있던 신체 부위가 사라지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편 그 부위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도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감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쯤 체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배꼽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려 했다.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 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라 마지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아무리 일상생활에선 드러나게 불편한 점이 없다 해도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만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곤 했다. 있느니라 여기고 지낼 때는 것처럼 무심스럽던 일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의식의 끈을 건드려 오자 허원의 상념은 잠시도 그 잃어버린 배꼽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져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는 눈만 뜨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했고, 그러면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관한 끝없는 상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잊어버리고, '배꼽'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한 '허원'입니다. 하지만 자꾸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있을 때는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던 '배꼽'의 존재가 한 번 의식된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허원'의 상념을 붙잡아놓습니다. 심지어 출근마저 단념할 정도로 말이에요. '배꼽'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탓인지, '허원'은 늦잠 버릇까지 고쳐 버립니다. 회사 출근을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으니 그저 가기 싫어 늦잠을 잤는데, '배꼽'에 대한 상념에 꽂히고 나니 잠을 자는 것도 잊을 정도로 몰입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없어진 '배꼽'에 대한 허망감이 때때로 또 '배꼽'에 대한 상념을 쌓고 있는 '허원'의 모습입니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런 모습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 갔다. 그에겐 어느덧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윤곽을 지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허원은 더욱더 허전해지고, 아무 곳에도 발이 닿아 있는 것 같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허공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그는 또 거듭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자신의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마치 그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사념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아내고, 그것으로 그 실물을 대신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세상 간에 큰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그것으로 그 난감스런 허망감을 채우려는 듯이. 그의 배꼽론은 가령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배꼽'에 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 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한 분야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그 사념이 엄청 깊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현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또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자신의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허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념 속에서라도 완벽한 '배꼽'의 형상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없어진 '실물 배꼽'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냥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몰입하면 저런 식으로 미쳐갈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의 한 단자(單子)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 탯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까지나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 하고, 또다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 나가며, 마침내는 마지막 어머니의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우리의 배꼽은 우리가 그 마지막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이며 가능성의 상징이며 존재의 비밀로 나아가는 형이상학이다. 그 비밀의 문이다……>

그는 어느덧 배꼽에 대해 당당한 일가견을 이룬 배꼽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었다.

'허원'의 '배꼽론'은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탯줄부터 시작해서 영혼으로, 그리고 우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보겠다고 덤빌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허원'의 내면세계를 파악하는 것이지, '허원'의 주장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저 <보기>에서 말한 대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일종의 'skip 가능 구간'으로 취급하며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문제에서도 자세한 이해를 물을 리가 없어요. 이 지문은 독서가 아니라 문학 파트너가요.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을 때였다. 그는 물론 배꼽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아직도 완전한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사념 역시 언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허원은 이제 그 자신의 배꼽론에 대해선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해 여름', '허원'은 여전히 '배꼽'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배꼽론'이라는 사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구요. 그 대신, '허원'은 '배꼽론'에 대해선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탄탄한 논리로 무장한 완벽한 '배꼽론'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즈음이였다. 허원은 문득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때부터인지 확실치 알 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인간 장기의 한 조그만 흔적에 대해 심상찮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배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기왕부터 있어 온 것을 여태까지 서로 모르고 지내 오다가 비로소 어떤 기미를 알아차리게 된 것인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관심을 내보이게 할 만한 무슨 우연찮은 계기가 마련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그런 관심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사실이였다. 주의를 기울여 보니 관심의 정도도 여간이 아니였다. 한두 사람, 한두 곳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였다. 그것은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듯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호로 아무 흥취물 없이 터놓고 지껄이거나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진지하게 논의의 대상을 삼기도 하였다.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 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묘한 현상이였다.

-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

그러던 어느 날, '허원'은 문득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집니다. <보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된 모습이지요? <> 부분 역시 일종의 'skip 가능 구간'으로, 결국 사람들도 '배꼽'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내용의 반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뻘한 말들이 반복되는 구간, 내면의 서술이 반복되는 구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확실하게 익혀 두세요.

물론 이걸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배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던 '허원'이 미쳐버린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 버린 가엾은 '허원'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구요. 그렇게만 읽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3%	4%	88%	3%

28.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서술 방식'이라는 말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문학 개념어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물을 거예요!

① ㉠: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나타내어 서술하고 있다.

㉠ 불편스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해설	'허원'의 생각인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죠? 서술자의 서술로도, '허원'의 내면 서술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② ㉠: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하며 그 심화된 의미를 함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 그깟 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음 어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술자의 평가가 아닌데?
해설	㉠은 '허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생각을 서술한 것입니다. 인물의 생각을 인물의 목소리로 제시하고 있을 뿐, 서술자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이를 반복해서 제시하는 식으로 심화된 의미를 서술한 것도 아니구요.

③ ㉠: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그쯤 체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배꼽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려 했다. ㉠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 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라 마지않았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물의 목소리가 아니지.
해설	㉠은 서술자가 '허원'의 의식을 표현해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 ㉡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허원'의 목소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④ ㉔: 인물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㉔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을 때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여름에 대해서 부가하여 서술하고 있네.
해설	‘어느 해 여름’이라는, ‘허원’이 처한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하니까 ~ 맞고 있을 때였다.’를 통해 부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⑤ ㉕: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㉕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갑자기라고 했는데?
해설	‘배꼽에 관한 논의’라는 인물 행동이 ‘갑자기’ 성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인 과정 없이 나타났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서술했다는 말은 허용하기 어렵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3%	81%	4%	3%

29. [㉔]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

- ‘비밀’은 ‘허원’의 ‘배꼽’이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허원’은 이에 대해 생각하다가 허망감에 빠지고, 또 그럴수록 더욱 ‘배꼽론’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상념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배꼽’의 ‘서사적 기능’, 즉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죠? 이 내용을 찾아봅시다.

①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 본 결과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신념을 돌이켜 본 결과 배꼽이 사라졌다는 거야?
해설	이 선지의 말대로라면, ‘허원’이 자신의 신념을 돌이켜 보자 ‘비밀’이 생겼다는 것이 됩니다. 이 지문에서 ‘비밀’은 말 그대로 갑자기 생겼을 뿐, 신념을 돌이켜 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세계관’, 즉 ‘배꼽론’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한다는 건 허용할 여지가 있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으로, 갈등으로 인한 위기감을 완화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간관계가 어딤냐.
해설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원’의 내면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 나온 적도 없고, ‘허원’이 인간관계를 걱정하는 적도 없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지네요.

③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로, 인물의 심리적 동요를 부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심리적 동요!
해설	‘배꼽’이 사라졌다는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허원’은 ‘비밀’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원’에게 계속 상념에 빠지게 하고 허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런 모습을 근거로 하면 ‘심리적 동요’라는 말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발문을 보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을 멋지게 정리한 것이나 다른 없는 선지네요.

④ 상충된 이해관계를 인물이 조정하는 단서로, 심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뭔 헛소리야.
해설	일단 ‘상충된 이해관계’가 나오지도 않고, 이를 ‘허원’이 조정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심화된 사회적 갈등’이라는 내용은 ‘허원’의 내면을 탐구하는 주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죠?

⑤ 기성의 질서에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로, 돌발적 사건의 발생을 알린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성의 질서에 왜 저항해.
해설	‘배꼽’이 사라진 ‘비밀’은 ‘허원’이 기성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돌발적 사건의 발생’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 전의 내용은 허용할 근거가 없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7%	9%	7%	74%

30. '허원'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애초에 이 지문은 '허원'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네요. 가볍게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① '허원'은 '실물'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허원'의 생각의 흐름 그대로를 적어둔 선지입니다. '실물', 즉 '배꼽'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처럼 심오한 생각을 하고 있는 '허원'이었어요.

② '허원'은 '실물'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감한 적이 있지.
해설	'허원'은 여러 서적을 통해 '실물', 즉 '배꼽'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감정에 공감했던 기억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지요?

③ '허원'은 '사념'을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배꼽이 없어진 상태에서 배꼽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했지.
해설	'허원'은 '사념'을 방편으로 삼아 '배꼽'이 없어졌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배꼽론'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다른 방향'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진 '배꼽'을 어색해하며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대신에 '배꼽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상황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향'을 허용할 근거가 있으니 허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④ '허원'은 '심상찮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허원'은 사람들이 '배꼽'에 대해서 '심상찮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왕부터 있어 온 것을 ~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다.' 부분을 통해 그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허원'의 모습이 잘 드러났었죠? 내용을 이해했다면 정말 쉬운 선지입니다.
----	---

⑤ '허원'은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그간 이어 온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유한 건 아니지.
해설	일단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허원'과 '실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리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배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건 그런 내면세계를 가진 '허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서술된 것이니까요. 나아가 '허원'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한 뒤에도 '사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지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3%	6%	81%	7%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① '의식의 끈'이 '진드려'짐으로써 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겠군.

있느니라 여기고 지낼 때는 것처럼 무심스럽던 일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의식의 끈을 진드려 오자 허원의 상념은 잠시도 그 잃어 버린 배꼽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배꼽'이 없다는 것을 한 번 의식한 순간부터, '허원'의 상념은 잠시도 그 잃어 버린 '배꼽'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공감했던 모습이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어요.

②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은,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저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는 눈만 뜨면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했고, 그러면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관한 끝없는 상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확실하게 변화했지.
해설	늘 하던 '회사 출근'을 단념하고, 늘 가지고 있던 '늦잠 버릇'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배꼽'이 사라졌다는 이상한 현상 때문에 '허원'에게 발생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 ③ '배꼽'을 '뺨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군.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주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 갔다.

(중략)

—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로부터 뺨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의 한 단자(單子)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중략) 마침내는 마지막 어머니의 뺨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뭘 말인진 모르겠지만 참 심오하고 추상적이지.
해설	'skip 가능 구간'으로 가볍게 넘겼던 부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해도, '배꼽'이 '뺨줄'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우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체크했었죠? 이렇게 소설에서는 추상적인 내면 서술 부분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인물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으므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겠군.

그의 사념 역시 언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허원은 이제 그 자신의 배꼽론에 대해선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완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도달한 거잖아.
해설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배꼽'이라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사소한 것에 얽매어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도달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죠? 오로지 그 사소한 것에 대한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어렵지 않게 이 선지를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네요.

- ⑤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사실이었다. (중략) 그리고 그렇듯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호로 아무 흥허물 없이 터놓고 지껄이거나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진지하게 논의의 대상을 삼기도 하였다.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묘한 현상이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확하네.
해설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은 다소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너무나 뜻밖인 상황이지만, '허원'이 보기에 어쨌든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현상을 보고 '허원'은 '기묘한 현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허원'이 지문 후반부에서 보여 주었던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옮겨 놓은 선지죠?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몰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③ skip 가능 구간 : 인물의 똑같은 내면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거나, 뻘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구간은 조금 빠르게 스캔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인물의 반복되는 내면을 길게 서술하는 형태여서, '내면세계'에 집중한다는 태도가 잡혀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나아가 'skip 가능 구간'을 활용한 완급 조절도 연습할 수 있는 지문이었죠?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와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만, 순간순간 '허원'에게 제대로 공감하며 읽었는지를 점검해보도록 합시다.

생각 워크북 <운문문학 해결하기>

2025.11 [32~34] 고전시가 '갑민가 / 녹양방초 언덕에~'

☆☆☆

<보기> 확인

<보 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인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안정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사실 지문의 내용, 주제를 알려 주는 <보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먼저 읽을 필요가 없는 <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발화자가 등장하여 작중 상황이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어지는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점 등은 독해 및 선지 판단 과정에서 어느 정도 쓸모가 있겠죠? 가볍게 체크해놓고 넘어가봅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흰 잠방이 노닥노닥
곶장 활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없어지리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히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一土)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에 인삼 캐고 구시월에 돈피* 잡아
공채 신역 갠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家舍田土)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 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쏜냐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배 빚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

군사 강정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헐어 나니
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充軍) 되것고야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말아 무니 석송*인들 당할쏜냐

- 작자 미상, 「갑민가」 -

- * 돈피: 담비 가죽.
- * 갑민: 갑산의 백성.
- * 석송: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지문이 길니다. 하지만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발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반에 나오는 발화자입니다. 쭉 읽다 보면, 밑줄 친 부분을 통해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원래 살던 곳에서 잘 살아 보자.'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간 즈음부터 '이내'로 표현된 발화자가 답을 합니다. 변방으로 쫓겨 왔다는 내용, 애슬프다는 내면세계, '석송'과 같은 부자도 당할 수 없는 세금 등의 내용을 보니 원래 살던 '갑산'에서 잘 살아 보자는 '그대'의 말이 허무맹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또 '화자의 내면세계'였습니다. 특이하게 화자가 두 명인 작품이니, 두 화자의 '내면세계'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가 있어 완벽하게 해석하지는 못해도, 제가 한 것처럼 '내면세계'를 파악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나)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희들아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팡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엮어다가 주렴
우리도 서주(西疇)*에 일이 많아 바삐 가는 길이며 가 전할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 다래끼: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
- * 서주: 서쪽 밭.

이번에도 <보기>의 내용을 입혀서 이해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아희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건네달라고 하는데, '우리'(=아희들)는 '서주'에 일이 많아 바쁘니까 못 전해준다고 대답하는 상황이에요. <보기>가 없었다면 이 상황을 대화 상황으로 파악하지 못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 <보기>를 먼저 보지 않았다면, 지문 독해 과정에서 의문만 남기고 넘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보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16%	60%	11%	6%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㉓

①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구가 있었나? 허리 위로~ 부분에서 외양을 묘사하고 있구나.
해설	사실 귀찮으니, 대충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지이긴 합니다. '대구 표현'은 생각보다 많은 운문문학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지문 초반부만 훑어보니, 다행히 3행~4행에 '대구 표현'이 나타나고 있네요. 나아가 '허리 위'와 '허리 아래'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외양을 묘사하면 당연히 그 외양과 관련해서 대상의 처지가 드러날 것이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첫 번째 발화자가 부정적 전망을 제시했으니 맞겠지 뭐.
해설	첫 번째 발화자는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쏘냐'와 같은 말을 통해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곳에 가서 근본을 숨겨 살려고 해도 살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죠? '행위의 실행 가정'까지는 찾지 못하더라도, '부정적 전망 제시'를 통해 원래 살던 곳에 사는 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발화자의 '내면세계'였음을 고려하면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선지일 것입니다.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뜬금없이 왜 의심을 해.
해설	'어데 간들 면할쏘냐', '이때 일을 모를쏘냐' 등에서 '의문의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하는 표현은 아니죠? 애초에 (가)의 두 발화자 모두 상대를 '의심'하는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즉 (가)의 주체와 '상대의 행적에 대한 의심'이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악화된 처지는 주제 그 자체네.

해설	두 번째 발화자는 과거에는 집안이 잘 나갔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며 악화된 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발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 즉 주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	---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십육 냥!
해설	'사십육 냥'과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석송'과 같은 부자라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생각 심화

이렇게 긴 지문에서 '대구 표현', '행위의 실행 가정', '의문의 표현', '구체적 수치'와 같이 미시적인 내용들을 묻는 경우, 많은 학생들은 당황합니다. 압박감 가득한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문들을 몇 번 읽게 되고, 미시적인 표현들을 확인할 기회도 더 많아지게 되니까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주제'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한다는 태도가 중요함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시적인 표현들을 굳이 찾지 않아도, 정답 선지의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는 부분은 주제와 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악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와 같은 표현은 모두 (가)의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들이죠. 정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주제'만 가지고 선지를 판단하고 넘어가도 관찰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이니, 문학에서도 '주제'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한다는 태도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11%	6%	8%	68%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에 ㉠인살 캐고 구지월에 돈피* 잡아
*돈피: 담비 가죽.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엮어다가 주렴
*다래끼: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

- ㉠은 첫 번째 발화자가 두 번째 발화자에게 '네 살던 곳'에서 캐면서 살라고 하는 사물이고, ㉡은 첫 번째 발화자가 두 번째 발화자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사물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독해는 해 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게 아니지.
해설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하려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죠?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달라고 했는데?
해설	분명히 '고기'를 다 몽땅 잡아서 '주렴'이라고 했습니다. 즉, 상대에게 '고기'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라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희를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상은 화자가 구하려는 게 아닌데?
해설	㉤은 이를 언급하는 화자가 상대에게 캐며 살라고 하는 것일 뿐, 유희를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 아닙니다. 애초에 해당 화자가 유희를 원한다는 것도, '인상'을 가지고 싶다는 것도 허용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또한 ㉥은 이를 언급하는 화자가 달라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유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목적이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요. 근거가 없으니 허용할 수 없겠네요.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상은 획득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해설	㉦은 이를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에게 재배하라고 권유하는 대상일 뿐이네요. 따라서 이를 획득하기 위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해석은 허용하기 어렵죠. 한편, ㉧의 경우 상대에게 가져다달라고 한다는 점에서 획득하기 위해선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은 이를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재배했으면 하는 대상이고, ㉩은 이를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가져다줬으면 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독해의 결과를 그대로 적어둔 선지이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50%	20%	18%	6%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난 사연은,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그대'가 첫 번째 발화자이고, '자네'가 두 번째 발화자입니다. '그대'는 살던 곳을 떠나려는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 즉 살던 곳에 살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네'는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사연을 풀어내고 있어요.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들었던 이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초에 주제 그 자체를 다루는 선지이기에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부조리를 왜 해결해.
해설	'이내'는 두 번째 발화자입니다. 그는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지위가 떨어져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표현일 뿐,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내면세계는 애초에 이 지문의 주제와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답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문학에서도 '주제'가 선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 계속 강조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	---

③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의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는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나)의 내용 그 자체죠? '고기'를 가져다 달라는 선행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는 바빠서 그러기 힘들다는 답을 합니다. 고전시가에 대한 경험이 많다면 이런 전개는 상당히 낯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 <보기>에서 이런 '의견 불일치'를 '의외의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죠?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하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네요.

④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리고 보니 그러네.
해설	사실 당연히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가만히 보니 '누구에게'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빠져 있기는 합니다. 이는 이 작품이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불완전한 표현을 통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해석을 미리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근거를 찾아서 허용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⑤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아희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다고 했지.
해설	<보기>의 첫 줄에서부터 이야기한 내용이죠? 서로 다른 발화자가 대화하는 장면 구성으로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든 모습입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p>*핵심 point*</p> <p>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p> <p>② 고전시가 독해 : 겁먹지 않고, 현대시를 읽듯이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가볍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해석은 선지가 해 줄 겁니다!</p>
--

<p>*지문 내용 총정리*</p> <p>다소 낯선 구성, 긴 지문 등으로 고전시가에 약점이 있는 학생들을 괴롭게 했지만, '주제' 중심으로 읽어 내고 선지를 판단한다는 원칙이 잘 잡혀 있는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 지문이 EBS 연계 지문이었기에 연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연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내용을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런 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EBS 학습이 비로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p>
